

# 가사전담 여성고령자의 주공간 평가

## The Evaluation of Living Space of the Elderly Female Household Workers

김 경 일 · 안 옥 회  
영남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Kim, Kyoung Il · An, Ok Hee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ome major factors which can be used as basic design guideline for the elderly housing as the comfortable dwelling circumstances to keep life as self-reliant and secure as possible in their life.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200 elderly women in Taegu,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individual visiting interview from 29th, Oct. to 15th, Nov., 1997.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The elderly women preferred to live 30.3 pyung as the house size, and they desire to live with the married son's family in urban areas.
- 2) The evaluation for the dwelling circumstance was unsatisfactory on the whole. All the preferred housing characteristics were different from the current housing characteristics. The comfortability of dwelling was least satisfied while the space size was most satisfied.

### I. 서 론

최근 발표된 인구센서스 결과(통계청, 1997)에서 나타난 한국 인구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고령화 현상이다.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1970년에 63.2세였으나 1995년에는 73.5세(남자 69.6세, 여자 77.4세)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76.1세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1995년에는 총인구의 5.9%로 나타났으나, 2000년에는 7.1%로 높아지고 2022년에는 14.3%(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에 달하게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저축중앙위원회의 조사(1995)에 따르면 고령자층의 59.5%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기를 희망하는데, 이는 1989년 조사 결과인 41.9%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결과이다. 그리고 최성재의 연구(1992)에 의하면 비고령층의 3/4 가까이가 노후에 자녀와의 별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고령자들이 선호하는 거주형태의 변화, 고령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건강유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의식의 변화에 따라 21세기의 고령자들은 결혼한 자녀들과 분가하는 독립주거형태를 취하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통계청 조사(1996)에 의하면 현재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있는 가구는 44.9%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령자 단독가구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이미 고령화가 진전된 선진외국에서의 고령자 복지 정책 및 주택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고령자 주거의 개발이 진행

된 것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 나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고령자 복지정책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를 위한 주거환경 및 시설설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다양해지고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고령자 복지정책은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의 고령자 주택에 대한 관심은 1970년도를 시작으로 1990년대에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허병이, 1991; 상형중, 1992; 장재호, 1992; 천진희, 1992). 초기에는 고령자의 주택문제를 주로 시설주거계획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고령자의 생리·심리적 특성상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적응현상이 우려되며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자녀세대와의 유대만으로 고령자의 주택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져 연구자들의 관심이 고령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쪽으로 이행되고 있다. 즉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저하와 손상을 가져오고 이로 인한 일상생활 활동의 타인 의존도가 심화되며, 이동성이 줄어들어 대부분(80~90%)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는 고령자에게 있어서 신체적·심리적·생리적 기능의 변화로 인한 주거공간에의 부적응은 더욱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따라서 주거환경 특히 실내공간에 대한 연구는 고령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Golant, 198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주거환경은 이제까지 살아온 자신의 주택을 고령자의 특성에 맞도록 개선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즉 고령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며 자녀세대에게 의존하여 주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진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이제까지 살아온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적응력이 높은 주거환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는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기능성을 보완하는 건축적 측면의 개선이 있어야만 주택의 쾌적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사전담 여성고령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자가평가를 알아봄으로써 고령자 주거의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가사전담 여성고령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써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가사전담 여성고령자의 현 주거환경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희망주거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 (3) 가사전담 여성고령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는 조사대상자가 고령자인 점을 감안하여 면담용 설문지 내용이 조사대상자에게 이해되는 정도와 구성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1997년 10월 3일 ~ 10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수정·작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1997년 10월 29일 ~ 11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는 연구자와 2명의 면접원이 함께 피조사자를 직접 호별방문 또는 노인정, 경로당을 방문하여 직접면접하는 직접면접법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피조사자에게 이해시키고, 면접자간의 오차가 최대한 없도록 하였다.

면접에 사용된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조사자의 일반적인 사항 - 연령, 동거인, 자녀수, 건강상태, 거주 년수, 교육정도, 소유형태, 현재 동거 가족 수, 건강관리법, 바람직한 가족 유형, 과거의 직업, 현재의 직업, 월 평균 생활비, 한달 용돈, 주거비에 대한 만족도의 15문항

- (2) 주거환경 특성(현 주거특성과 희망 주거 특성) - 주택의 입지조건, 주택유형, 주택평수, 전체 방의 수, 사용하는 방의 수, 난방종류, 화장실의 형태, 욕실, 욕실의 형태, 부엌의 형태, 거실, 정원 혹은 마당에 대한 24 문항

- (3) 주거환경 평가 - 5점 리커트 척도(1=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에 의해 평가하는 17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내며, 실제 설문지에는 주거환경

평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17문항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처리는 SPS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chi^2$ -test, 요인분석 등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단독 고령자 가구의 가사 전담 여성고령자 200명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단독가구의 여성 고령자로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결혼 연령이 남성보다 낮으며, 여성의 평균수명 또한 남성보다 길어 주생활의 주체로 생활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남성은 바깥 생활을 주로 하는 반면, 여성은 가정내에서 생활하고 가사활동을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성고령자의 주거공간 사용범위가 더 넓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고령자 중에서도 가사를 전담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은 케어서비스를 위한 특별한 보호나 가사보조자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주생활을 보다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되어 가사전담 여성고령자(만65세 이상)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 III. 조사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 200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연령은 70세이상의 후기 고령자의 비율이 67.0%이며 평균 연령은 73.1세로 나타나 후기 고령자에 해당된다. 자녀수는 평균 4.9명, 동거 가족수는 평균 2.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

<표 1> 사회인구학적 특성

N=200

변 인	내 용	N	%	변 인	내 용	N	%
연 령 (세)	65세 - 69세	66	33.0	교육 정도	문맹	77	38.5
	70세 - 74세	55	27.5		무학(한글 또는 한자해독)	50	25.0
	75세 - 79세	37	18.5		초등학교 졸업	51	25.5
	80세 이상	42	21.0		중학교 졸업이상	22	11.0
	평균	73.1					
동거인 (인)	단독노인	43	21.7	소유형태	자가	106	53.0
	노인부부	62	31.3		전세	60	30.0
	미혼자녀동거	33	16.7		월세	20	10.0
	기타	60	30.3		영구임대아파트	14	7.0
	평균	4.9					
자녀 수 (명)	0명	3	1.5	현재 동거 가족 수 (명)	0명	51	25.6
	1명	7	3.5		1명	76	38.2
	2명	19	9.5		2명	26	13.1
	3명	35	17.5		3명	19	9.5
	4명	48	24.0		4명	10	5.0
	5명 이상	88	44.0		5명 이상	17	8.5
	평균	4.9			평균	2.6	
건강상태	아주 힘든 편이다	55	27.5	건강 관리법	식사에 주의한다	7	3.5
	조금 힘든 편이다	57	28.5		산책을 한다	44	22.2
	보통이다	40	20.0		조강을 한다	16	8.1
	양호한 편이다	46	23.0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21	10.6
	아주 양호한 편이다	2	1.0		가벼운 팔·다리운동을 한다	55	27.8
	평균	2.4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46	23.2
거주 년 수	5년 이하	110(55.0)		고령자의 바람직한 가족유형	혼자서 사는 것	23	11.5
	6~ 10년	35(17.5)			노부부만 사는 것	45	22.5
	11~ 15년	7( 3.5)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것	12	6.0
	16~ 20년	19( 9.5)			결혼한 아들부부와 사는 것	88	44.0
	21년 이상	29(14.5)			결혼한 딸부부와 사는 것	0	0.0
	평균	9.9			노인전문시설에서 사는 것	32	16.0

\* 무응답의 경우 missing value로 처리하여 사례 수에 다소 차이가 있음.

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한 평균 자녀수 4.3명과 거의 비슷한 결과(1989)로써 70대는 전통적인 확대가족 형태에서의 다산의식이 강했던 일면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동거 형태는 '노부부'가 31.3%로 가장 많았고, '혼자서'도 21.7%나 되었으며, 학력의 경우 문맹이 38.5%로 가장 많았다. 이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조사(1989) 결과, 남자고령자의 문맹비율이 12.4%이고, 여자고령자의 경우 43.4%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로 여성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자해독능력을 고려한 연구방법을 택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주관적으로 판정한 건강상태는 '조금 힘든 편이다'가 28.5%로 가장 많았고 '아주 힘든 편이다' 27.5%로 나타나 전체 56.0%가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연구(1989)에서 여자고령자의 51.2%가 자신의 현재 건강상태를 '아주 또는 약간 나쁘다'고 응답한 것과 유사하며 이는 남자고령자의 응답 32.4%에 비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건강관리법으로는 '가벼운 팔·다리운동'이 27.8%로 가장 높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23.2%로써 응답자 대부분은 건강관리를 위해 스포츠나 특별한 건강관리를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강자 외(1998)의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강유지방법은 남성고령자는 운동을 통한 건강의 유지가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여성고령자의 경우 건강유지 방법이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가 53.0%로 가장 많았으며, 현 거주지에서 거주 년 수는 5년 이하가 55.0%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21년 이상인 경우도 14.5%를 나타내어 평균 거주 년 수는 9.9년으로 비교적 길었다. Butler와 Lewis(1977)는 고령인구의 75%가 그들의 주택이나 이웃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점들을 발견하지만, 그 중 95%이상은 여전히 이동을 원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고령자들이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더라도 이동은 고령자들의 우울증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며, 활동성을 저하시킨다고 밝혀졌다(Inman & Duffus, 1985; Liberman, 1969). 그러므로 이동 후 거주지에서 친숙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연구와 더불어 현 거주지에서 노쇠현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제

반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가능한 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본다.

조사대상자 중 90.9%가 이사경험이 있었으며 44%가 이사 후 장남가족과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비율이기는 하나 한국 갤럽조사 연구소의 1984년 조사에 의하면 고령자의 자녀동거희망 비율이 83.3%이고, 1989년 조사에서는 6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자녀동거 희망비율이 50.0%로 나타나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경제적 특성

고령자의 경제적 특성을 보면 <표 2>와 같다. 과거의 직업은 '농업'이 48.0%, '무직'이 30.5%, '상업'이 21.5%이었으며, 현재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88.0%로 가장 많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여성고령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에는 전업주부보다 농업이나 상업 등에 종사하다가 고령자가 된 현재는 가사작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월 평균 생활비는 55만원정도이며, 한달용돈은 평균적으로 약 1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2>고령자의 경제적 상태 N=200

변 인	내 용	N	%
과거의 직업	농업	96	48.0
	상업	43	21.5
	무직	61	30.5
현재의 직업	농업	15	7.5
	상업	9	4.5
	무직	176	88.0
월 평균 생활비	200,000원 이하	27	13.5
	210,000 ~ 400,000원	62	31.0
	410,000 ~ 600,000원	38	19.0
	610,000 ~ 800,000원	33	16.5
	800,000원 이상	40	20.0
	평균(원)	555,769	
한달 용돈	50,000원 이하	55	27.5
	60,000 ~ 100,000원	86	43.0
	10,000 ~ 150,000원	14	7.0
	160,000 ~ 200,000원	18	9.0
	2,000,000원 이상	27	13.5
	평균(원)	110,105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조사(1994) 결과, 한달 생활비로 약 2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높은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연구는 농어촌을 포함하고 있고 본 연구는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경제적 사항과 관련지어 주거비가 부담스러운지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5점 리커트식 측정을 한 결과, 평균 3.2점으로 약간 부담스러워함을 알 수 있다<표 3>.

<표 3> 주거비 부담에 대한 평가 N(%)

변 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주거비가 부담스럽다	6 (3.1)	47 (23.5)	60 (30.0)	65 (32.5)	18 (9.2)
평균 = 3.2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1994)에서 54.9%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평가한 것과 한국 인구 보건 연구원의 연구결과(1993), 고령자들의 생활비에 대한 불만족이 64.5%를 나타낸 것과 유사한 결과로, 전체 고령자의 반 이상이 현재 생활비 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고령자를 위한 경제 정책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 2. 고령자의 주거환경특성

조사대상자의 현 주택 특성을 희망하는 주택특성과 비교하였다<표 4>. 현 주거 변인파 희망주거 변인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희망 주거변인은 현 주택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약간 상향 개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결과를 자세히 보면 주택의 입지조건은 본 연구의 조사가 대구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도심지'가 69.2%로 가장 많았는데, 희망도 '도심지'가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도심지' 희망이 현재보다

<표 4> 주거환경 특성

변 인	내 용	현재 주거	희망 주거	x <sup>2</sup>
		N(%)	N(%)	
주택의 입지조건	도심지	135(69.2)	102(52.0)	***
	도시근교의 전원	60(30.8)	94(48.0)	83.057
주택 유형	단독주택	118(59.0)	122(61.0)	***
	공동주택	82(41.0)	78(39.0)	31.431
주택 평수	20평이하	79(39.5)	56(28.0)	***
	21-30평	46(23.0)	67(33.5)	
	31-40평	31(15.5)	35(17.5)	
	40-50평	15( 7.5)	13( 6.5)	
	50평이상	29(14.5)	29(14.5)	
	M	27.4	30.3	432.437
전체 방의 수	1개	29(14.9)	28(14.2)	***
	2개	60(30.9)	54(27.4)	
	3개	73(37.6)	74(37.6)	
	4개	17( 8.8)	25(12.7)	
	5개 이상	15( 7.7)	16( 8.1)	
				167.361
사용하는 방의 수	1개	120(61.9)	125(64.4)	***
	2개	43(22.2)	32(16.5)	
	3개	24(12.4)	35(18.0)	
	4개	7( 3.5)	2( 1.0)	
난방종류	연탄은들	5( 2.6)	2( 1.0)	***
	연탄보일러	16( 8.0)	6( 3.0)	
	기름보일러	153(76.5)	172(87.3)	
	가스보일러	18( 9.0)	14( 7.1)	
				287.417
화장실의 형태	양변기	110(56.7)	168(85.7)	***
	좌변기	49(25.3)	25(12.8)	
	재래식	35(18.0)	3( 1.5)	
				58.666
욕 실	있다	116(60.4)	190(95.0)	**
	없다	76(39.6)	7( 3.5)	
				11.144
욕실의 형태 (욕조와 변기 관계)	공동형	118(88.7)	143(81.3)	***
	벽으로 분리	13( 9.8)	28(15.9)	
	커튼으로 분리	2( 1.5)	5( 2.8)	
				50.460
부엌의 형태	독립형	113(57.9)	88(44.7)	***
	식당겸용	50(25.6)	78(39.6)	
	식당, 거실겸용	32(16.4)	31(15.7)	
				68.398
거 실	있다	112(58.0)	187(95.9)	**
	없다	81(42.0)	8( 4.1)	
				11.632
정원 혹은 마당	있다	72(36.9)	137(69.9)	***
	없다	123(63.1)	59(30.1)	
				48.764

\*\* p<.01 \*\*\* p<.001

다소 낮은 반면 '도시근교의 전원'은 현재보다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세대가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대구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박재간(1992) 등의 연구결

과에서 제시된 도시근교의 전원을 희망한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났으며, 최성재의 조사(1992)에서 고령자의 신체기능이 약화되었을 경우 택하는 거주장소로서 현재 살고 있는 집(57.3%), 병원(19.3%), 자녀의 집(13.5%), 고령자 시설(3.5%)이라는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즉 고령자는 현재 거주하는 곳에 대한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중요성 및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주거환경의 개선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택유형은 현재 '단독주택'에 사는 비율이 59.0%로 가장 많았으나, 희망하는 주택유형으로는 '단독주택'(61.0%)을 더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이것은 오찬욱의 조사(1992)에서 주택의 소유의식 때문에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노후생활을 위한 이상적인 주택유형으로 단독주택에 머무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의 평수는 현재 평균 27.4평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가족 수가 2.6명이므로 이를 고려할 때 주택의 크기는 양호한 것으로 사료된다. 희망하는 크기는 지금보다는 조금 넓은 평균 약 30.3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내부 환경을 보면, 전체 방 수는 현재 2개내지 3개가 68.5%에 해당되며, 희망도 65.0%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지만, 현 방수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사용하는 방 수는 1개가 61.9%이고, 희망도 1개가 64.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그 경향성이 유사하나, 희망하는 방 수는 현 방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난방종류도 현재 기름보일러 사용(76.5%)이 가장 많았으며, 앞으로는 더 많이 희망(87.3%)하고 있었다.

화장실의 형태는 현재 '양변기' 사용이 56.7%로 가장 많았으며 앞으로는 '양변기'를 85.7% 희망하여 그 희망비율이 큰데 이는 신체기능의 저하에 따른 하지 근력의 무리와 더불어 고령자 주거내 화장실 설비의 필요성을 시사함을 알 수 있었다.

욕실은 고령자의 생리적 기능의 저하 및 관절계의 감퇴로 인한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므로 공중목욕탕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반드시 주거내에 있어야 하는 공간으로써 현재 60.4%가 욕실이 있으나 욕실 희망은 95.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류혜정(1992)의 조사에 의하면 남자고령자보다 여자고령자가 욕실의 필요성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독 여성고령자의 거주 시 특히 욕실에 대한 공간적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하리라 본다.

욕실의 형태는 '욕조, 변기 공동형'이 현재 가장 많은 형태(88.7%)이고 희망(81.3%)도 높지만, '욕조, 변기 분리형'의 희망이 증가(15.9%)하고 있으므로 고령자를 위한 전용주거에서는 욕실형태 선택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부엌의 형태는 현재 '독립형'이 57.9%로 절반이 넘으나, 희망 형태는 '독립형'이 44.7%로 낮아진 반면, 부엌과 식당의 겸용이 약간 증가(39.6%)하였다. 이는 신체기능의 저하에 따라 음식을 만든 후 나르기 쉽도록 부엌과 식사공간이 인접해야 함을 시사한다.

거실은 58.0%가 현재 있으나 희망비율 95.9%로 크게 증가하여 고령자의 주택에서는 거실선호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정원 혹은 마당은 36.9%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희망은 69.9%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전명숙(1992)조사에서 노후 주거환경에 있어서 정원시설은 84.5%의 중요성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고령자의 취미생활 및 옥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적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령자가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계획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 3. 고령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77.5%가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의 연구(1992)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 고령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구조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비율이 21.9%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에 고령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위한 17문항에 대하여 5점 리커트식 측정을 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도록 한 결과<표 5>, 평균 3.2점으로 나타나 약간 불만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급탕시설, 난방시설, 방음

상태(3.7점)를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햇볕, 전망, 환기 및 통풍(3.6점)이고, 화재의 위험, 개인생활(3.5점)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류혜정의 연구(1992)에서 난방설비, 상·하수도설비, 더운 물쓰기, 햇볕, 통풍과 환기, 전망을 중요한순으로 보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써 주거 내 설비에 대한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표 5>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

변 인	M	SD
우리 집은 더운물 쓰기에 불편하다	3.7	.8
우리 집은 난방시설이 좋지 않다	3.7	.9
우리 집은 방음상태가 좋지 않다	3.7	.7
우리 집은 환기와 통풍이 잘 안된다	3.6	.9
우리 집은 개인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	3.5	.8
우리 집은 화재의 위험에 불안하다	3.5	.7
우리 집은 상·하수도 시설이 좋지 않다	3.4	1.1
우리 집은 부엌의 수납 공간이 높다	3.1	.9
우리 집은 욕실 바닥이 미끄럽다	3.1	1.1
우리 집의 거실의 면적은 좁다	3.1	1.1
우리 집은 전체적으로 수납공간이 높다	3.1	.9
우리집은 전기를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3.0	1.1
우리 집의 부엌 면적은 좁다	3.0	1.1
우리 집의 욕실 면적은 좁다	3.0	1.0
우리 집의 전체적인 조명상태가 어둡다	2.9	.9
우리 집의 면적은 전체적으로 좁다	2.8	1.1
우리 집의 침실의 면적은 좁다	2.7	1.0
평 균	3.2	.9

이들 17개 문항에 대한 주거환경 평가를 요인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제1요인은 급탕시설 등의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져 [쾌적성], 제2요인으로는 부엌의 면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면적성]이라 명명하였고, 제3요인으로는 부엌의 수납높이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편리성], 제4요인으로는 욕실바닥의 미끄럼 등의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져 [안전성]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의 전체 설명량은 66.1%였다. 즉 고령자들은 주택의 설비시설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다음으로 공간의 면적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요인 별로 살펴보면, 쾌적성 요인(3.6점)→안전성 요인(3.3점)→편리성 요인(3.0점)→면적성 요인(2.9점)의 순으로 나타나, 현 주거환경에 대하여 쾌적성 요인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으며 면적요인에 대해

<표 6>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의 요인분석

요 인	평 가 항 목	요 인 부 하 량				공통성	요인명명
		I	II	III	IV		
I	급탕시설	.825	-.117	.093	-.086	.616	쾌 적 성
	난방시설	.817	.056	.057	.025	.538	
	상·하수도시설	.697	.149	.114	.131	.711	
	환기 및 통풍상태	.566	.023	-.082	.536	.674	
	방음상태	.528	.044	.383	.084	.435	
II	부엌의 면적	.147	.908	.154	.037	.698	면 적 성
	침실의 면적	.217	.830	.090	.182	.650	
	주택의 면적	.139	.763	.307	-.042	.871	
	거실의 면적	-.293	.649	.100	.364	.777	
	욕실면적	-.312	.636	.090	.431	.696	
III	부엌의 수납높이	.228	.154	.837	.068	.595	편 리 성
	전체의 수납높이	.117	.210	.792	.131	.703	
	전체조명상태	.031	.148	.763	.163	.781	
IV	욕실바닥 미끄럼	-.140	.213	.225	.692	.632	안 전 성
	개인생활유지	.494	.092	.008	.677	.711	
	화재위험	.372	.172	.170	.596	.552	
	변기사용	-.081	.086	.486	.590	.599	
아이겐값		5.2	2.7	1.6	1.7		
설명변량 (%)		30.8	17.4	9.3	8.6		
누적변량 (%)		30.8	48.1	57.5	66.1		

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급탕시설, 난방시설, 상·하수도 시설, 환기 및 통풍상태, 방음상태 등 주거 시설면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여성고령자의 거주 주택 공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현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계획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구시 거주 단독 고령자 세대의 가사전담 여성고령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조사대상자는 평균 73.1세로 4.9명의 자녀가 있으나 현재 2.6명과 동거하고 있었다. 동거형태는 노부부 또는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56%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주택의 특성을 보면 단독주택, 자가에서 평균 9.9년을 살고 있었다.

둘째 현재와 희망 주거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본 조사대상자들은 결혼한 아들부부와 도심지에 위치한 30.3평의 단독주택에서 앞으로 주생활을 영위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주거 내 환경을 보면 희망 주거변인은 현재 주택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약간 상향 개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양변기 사용(85.7%), 욕실회망(95.0%), 거실회망(95.9%), 정원 혹은 마당회망(69.9%)비율이 크다.

셋째 고령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는 77.5%가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주거환경에 대하여 쾌적성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면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가사전담 여성고령자는 주택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요구보다는 각 공간에 대한 미시적 요구로써 특히 화장실, 욕실, 부엌의 형태적 측면과 설비시설, 그리고 실내·외 공간에 대한 배려에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고령자 주택의 환경개선시 이

러한 요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시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단독 고령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주거환경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 참 고 문 헌

1. 국회도서관(1960-1996). E-mail: www.nanet.go.kr.
2. 류혜정(1992). 노인단독가구의 주거 규범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3. 상형중(1992).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 및 주택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삼우종합건축사무소.
4. 이가옥 외(1993).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_\_\_\_\_ 외(1994).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_\_\_\_\_ 외(1989).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7. 이강자 외(1998). 인천시 노인의 생활특성과 관련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4), 199-215.
8. 오찬옥, 이연숙(1992). 노년기 주거욕구 파악을 위한 하위 상행설정 기준. 한국노년학회논문집, 12(2), 123-137.
9. 저축중앙추진위원회(1995). 노후생활에 관한 의식 및 준비실태조사.
10. 전명숙(1992). 노인주거에 관한 중년층의 주요구. 대한가정학회지, 30(4), 121-136.
11. 장재호(1992). 인체치수를 고려한 노인주거의 실내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최성재(1992). 노인주택개발과 노인주택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3. 천진희(1992). 고령자의 실내환경에 관한 연구. 대유공업 전문대학 논문집, 14.
14. 통계청(1996). 한국의 사회지표 1995.
15. 통계청(1997). 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16.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92). 노령 계층의 소득보장방안.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7). 신인구추계에 의



- 한 인구규모 및 구조전망과 정책과제.
18.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5).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19.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0).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20. 허병이(1991). 노인의 주거현황과 거주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인천전문대학논문집, 15.
  21. Butler, R. N., & Lewis, M. I. (1977). *Aging and Mental Health: Positive Psychological Approaches*. St. Louis: C. V Mosby.
  22. Golant, S. M. (1982). Individual difference underlying the dwelling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Social Issues*, 38(3).
  23. Inman, M., & Duffus, J. (1985). Adaptation to dwelling and interiors by independent older adults following relocation.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4), 51-61.
  24. Liberman, M. (1969). Institutionalized of the Aged Effects on Behavior. *Journal of Gerontology*, 24, 330-340.